

文대통령 지지율 45.8%...민주당 32.2% · 국민의힘 29.6%

긍정평가 1%p 상승...부정 1.8%p 하락해 50.0%

30대 · 학생 · 자영업 등서 긍정평가 상승 폭 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오르면서 부정평가와의 격차를 좁혔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0월2주차(12일~16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45.8%(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21.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내린 50.0%(매우 잘못함 35.5%, 잘못하는 편 14.5%)로 조사됐다.

우 잘못함 35.5%, 잘못하는 편 14.5%)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증가한 4.2%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4.2%포인트로 9월 3주 차 이후 4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결과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호남(5.5%p ↑), 30대(8.3%p ↑)·60대(6.4%p ↑)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정의당 지지층(8.4%p ↑)과 무당층(5.3%p ↑), 보수층(4.8%p ↑)에서도 상승 폭이 컸고, 학생(8.8%p ↑)·자영업(4.3%p ↑)에서 긍정 평가율이 올랐다.

다만 충청권(3.0%p ↑)과 20대(3.1%p ↑), 열린민주당 지지층(4.8%p ↑)에서는 부정평가율이 상승했다.

전반적인 지지율 상승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 방역 조치에 따른 효과라는 게 리얼미터 측의 분석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유평터스' 사태에서도 청와대 전·현직 인사 연루설이 제기됐지만, 국정감사 중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청와대는 우선 여파에서 비껴났다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2.2%를 기록했다.

했다. 국민의힘은 0.7%포인트 오른 29.6%로 상승 반전세를 보였다.

두 당의 격차가 2.6%포인트로 집계되며 9월 5주 차 조사 이후 2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열린민주당은 2.6%포인트 상승한 8.9%, 국민의당은 0.3%포인트 하락한 5.9%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0.6%포인트 오른 5.7%, 기본소득당은 0.2%포인트 상승한 1.3%(0.2%p ↑), 시대전환은 전주와 같은 1.0%로 집계됐다.

기타정당 지지층은 0.2%포인트 내린 1.9%, 무당층은 전주와 변동 없이 13.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향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18세 이상 유권자 5만7547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23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주호영 “秋, 절대자처럼 행동...사건 본질 흐려지는 일 반복”

“특검 관철할 법안 제출...여야 정쟁 즉시 중단해야”

“소비쿠폰 뿌려 코로나 확산 원인된 교훈 잇었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추미에 장관이 마치 전지전능·무소불위의 절대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습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권위 유착 때도 그렇고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때도 그랬듯 사건 본질이 흐려지고 엉뚱한 쟁점으로 흘러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더이상 추미에 검찰에 라임 유평터스 사건 수사를 맡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망가져도 너무 심

하게 망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검찰사에서 추 장관이 어떻게 기록될지 잠시라도 돌아보길 바란다. 권력이 다하면 원한에 따른 보복이 반드시 있다는 퇴임 검사의 이야기를 부디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맡겨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빠른 시간 안에 특검 관철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소비활인권 지원사업 재개와 관련해 “지난 7월말 소비 쿠폰을 줬서 8월 수도권에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된 교훈을 잊었느냐”면서 “생활과 방역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부 실책으로 코로나가 주기적으로 확산하고 그때마다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 두번 다시 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건 영세 자영업자 살리기, 서민 경제 활성화, 코로나 안정관리지 영화체육분야 쿠폰 발행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만약 이 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이번엔 책임 절대 다른 곳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

與 “정세균·정은경 서울시장 후보? 검토된 바 없다”

“지도부서 논의된 바 없고 완전히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후보로 차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전면부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청장의 출마설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있는데 지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며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그렇게 거론했다는 (사실)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것”이라며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정 총리와 정 부장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냐는 질문에 “논의된 바 없고 완전히 사실무근”

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아직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후보를 낸다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일부 언론은 민주당 내에서 ‘필승 카드’로 정 총리와 정 청장의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이낙연, ‘김봉현 옥중서신’에 “공수처 설치 서두르겠다”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안 낼 시 대안입법 준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사태 핵심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검찰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야당 (후보)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이 이뤄지도록 원내에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이 입주할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야당의 후보

추천위원 시한을 오는 26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업체 방문과 관련해 “이번주 안에 한 군데를 더 갈 것”이라며 “우리는 조기 진단과 광범위한 검사에 성공했고, 이제 조기치료와 광범위한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 확실한 치료제를 대량생산한다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청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전문팩스 062-946-0053